



보도시점

2026. 5. 17.(일) 11:00

5. 18.(월) 조간

배포

2026. 5. 15.(금) 16:00

“영농부산물 소각 예방 총력”... 봄철 산불 피해 크게 줄었다

- 범정부 협업으로 산불 피해면적 99%↓, ... 영농부산물로 인한 산불 대폭 감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산림청(청장 박은식),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1.20.~5.15.) 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확대, 산불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봄철 산불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산불 발생과 피해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봄철 산불 발생 건수는 349건이나, 피해면적은 지난해 105천ha에서 올해 722ha로 99% 감소하였다.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올해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가장 큰 성과로 보고 있다.

* (5.14기준) 산불 발생 (25) 348건 → (26) 349건 0.3%↑, 피해 면적 (25) 105천ha → (26) 722ha 99%↓, 주민피해 (25) 149명 → (26) 0건 100%↓

그동안 농촌지역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영농부산물 소각 산불은 농촌진흥청·산림청·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협업 강화와 집중파쇄지원, 대국민 홍보 확대 등에 힘입어 최근 10년(’16~’25) 평균 46건이었으나, 올해는 11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밖에도 농식품부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봄철 산불발생 예방 및 초기진화에 집중하였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진청, 산림청 등 농림 관계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산불 예방 활동을 총괄·조정하며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 운영을 위한 관계자 회의와 시·도 농정국장 회의 등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을 조율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매일 2회 이상 산불발생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산불대응 상황관리와 상황전파를 실시하였다.

농진청은 전국 139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 (438개조 1,592명)하며, 지금까지 총 94천톤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였고, 13만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불법소각의 위험성과 안전파쇄 교육을 실시하고, 16만여 건의 산불예방 문자를 발송하여 불법소각 근절과 산불 예방 인식 확산에도 적극 나섰다.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예년보다 앞당겨 올해 1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11,745명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산림재난대응단 약 10,000명 등을 활용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과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협과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도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 하였다. 농협은 농기계 이동수리센터와 순회정비단을 운영*해 파쇄기 무상 점검과 경정비를 지원하고, 농협 ATM 2만 대와 리플릿 20만 부 등을 활용한 산불 예방 홍보를 추진하였다. 산림조합 역시 문자 발송 및 SNS 홍보(125천건), 현수막 (272개) 게시 등을 통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예방 활동에 동참하였다.

* 「NH농기계이동수리센터」 및 「NH농기계순회정비단」운영 : (이동수리) 11회 485대, (정비단) 12회 1,774대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과거에 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총괄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올해 봄철 산불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확대와 불법소각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재형 (044-201-1511)
		담당자	사무관	최상만 (044-201-1512)
담당 부서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채의석 (063-238-1053)
		담당자	지도관	정병진 (044-238-1051)
담당 부서	산림청 산불방지과	책임자	과 장	금시훈 (042-481-4250)
		담당자	사무관	정지철 (042-481-4255)